



인터뷰

미래를 여는 서산교육, 성기동 교육장이 전하는 새로운 비전

“교육이 특별한 서산, 꿈이 특별한 학생을 위해”

올해 새해를 맞아 서산교육지원청이 새롭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산AI교육체험센터 개관, 서산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굵직한 성과를 남기며 미래교육의 초석을 다진 서산교육지원청은 이제 2025년을 향한 비전을 그리며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을 깨우는 온생각' 운영생성형 인공지능 과제지기 사실확인 골든벨대회(6월), 유아 창의속속 AI와 떠나는 미래여행(6월), 장애학생 e스포츠투대회(9월), 아이(AI)와 함께하는 아배채움교실 및 가족 채움캠프(6월), 인공지능으로 잇는 동네 밤나 상상마을 캠프(8월)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소규모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유 6원) 한글사랑 주간, 글사랑공모전 운영 지원(전체 초·중, 10월) 찾아가고 찾아오는 마을 체험학습 운영(초 174, 중 22학급)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인공지능교육 활성화를 위한 AI교육체험센터 운영, 서산교육발전특구 진로박람회 개최(11월) 혁신학교(10교)와 혁신동행학교(47교) 운영 지원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중학생 국내·외 역사문화탐방 운영(중 16교, 6~12월) 제1회 서산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개최(160명, 9월), 서산 환경교육 한마당(한·장·해·유) 운영(11월)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서산유아실내체육센터 주말 가족 숲 생태놀이대 운영(4~9월, 4회) 한서대해양스포츠킴연계 연계 바다 생존수영 실기교육(초5~6학년, 7교, 560명),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지원단 운영(4개, 초·중·고 31교, 78회)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 서산교육지원청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2회), 지방공무원 청렴동아리 및 교육행정자문 봉사 동아리 운영, 저경력 공무원을 위한 조력자 제도 운영(34명, 1:1멘토-멘티) ▲주도성을 키우는 서산 미래교육(중점사업): 디지털활용 문해력 프로그램 '아침

2025년 주요사업으로는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유방백 전문가과학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전체 초·중, 4~12월), 서산형 늘봄통합플랫폼 '내 손에 해봄' 앱 개발 및 적용.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지역특화콘텐츠를 활용한 서산 AI 교육체험센터 운영, 교육발전특구 연계 서산진로박람회 운영(10월)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중학생 국내·외 역사문화탐방 운영(전체 중, 4~12월) 서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9월), '가로림만 해양정원 1·4·9 생태

전환1)' 프로그램 운영(3~12월), 서산환경교육한마당 '한·장·해·유' 운영(11월)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주)한화토탈 연계 희망누리사업 운영, 서산유아실내체육센터 '주말 가족 행복놀이대' 운영(연 10회) 학교지원센터 운영지원단 활성화(3~12월) ▲모빌리티와 함께하는 어울림 서산교육인 2025 중점사업: 지역차세대 산업 연계 인종도서(교과서) 개발(4종) ·학교급별 인종도서 개발 추진단 및 전문 지원단 운영(1~7월) ·인종도서 개발 추진단 통합 배움자리 운영(1, 5월)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전체 초·중·고) ·지역차세대 산업 연계 교육과정 지원 센터 운영(9~12월) ·지역차세대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이공학교 운영(유·초·중·고 9교) ·지역차세대 산업 연계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9~12월) ·행복교육지구 연계 미래 모빌리티 체험학습 운영, 지역차세대 산업 연계 교육과정 확산·지역 기업 및 대학 연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질의 ▲(언론)/응답 ■(교육장) ▲성기동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2025

년 새해를 맞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아 서산교육지원청의 교육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계획할 수 있어 기쁩니다. 교육이란 것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방향은 '다함께 성장하는 어울림 서산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서산교육의 큰 발자취」 ▲2024년은 서산교육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은 서산교육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진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요 성과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성과는 서산AI교육체험센터 개관으로, 이를 통해 인공지능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산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공교육 혁신을 이끌며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연계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4년 03. 01제33대 성기동교육장 취임 2010년 2010. 09. 01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 1991년 1991. 03. 26 충청남도 서산교육청으로 명칭 변경 1989년 1989. 01. 01 태안군 승격으로 태안교육청 분리 1982년 1982. 11. 20 현 청사 신축 이전 1964년 1964. 01. 01 교육자치제 부활로 서산군 교육청 개칭 1962년 1962. 01. 01 교육자치제 폐지 1952년 1952. 06. 04 교육자치제 실시로 서산교육청 개칭

「2025년, 희망찬 서산교육의 청사진」 ▲2025년에는 어떤 목표와 방향을 계획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새해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에 주력하려 합니다. 첫째, 디지털 학습 플랫폼인 '온(On)시스템'을 활용해 기초·기본학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사 학습공동체와 행복 지원장학을 통해 협력적인 교실 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둘째, 서산AI센터, 류방백전문기상과학관 등을 활용한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산진로박람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서산교육은 공존과 공생의 생태환경교육을 지향합니다. 가로림만 생태체험교육 등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부모 연계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산업 연계 교과서 개발, 지역

서산교육지원청 2024년 03. 01 제33대 성기동교육장 취임 2010년 2010. 09. 01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 1991년 1991. 03. 26 충청남도 서산교육청으로 명칭 변경 1989년 1989. 01. 01 태안군 승격으로 태안교육청 분리 1982년 1982. 11. 20 현 청사 신축 이전 1964년 1964. 01. 01 교육자치제 부활로 서산군 교육청 개칭 1962년 1962. 01. 01 교육자치제 폐지 1952년 1952. 06. 04 교육자치제 실시로 서산교육청 개칭

산업과 연계된 미래 모빌리티 교육과정 이공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 교육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다함께 성장하는 어울림 서산교육'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기동 교육장은 1988년 송산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당진교육지원청 장학사, 성당초등학교 교감, 기지초등학교 교장, 충청남도교육청 초등인사팀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교육 현장을 경험하였다. 2024년 3월 1일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하여,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교육 혁신을 이끄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기금현자

▶ 3면에 이어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과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충북형 나우 늘봄학교'가 '25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상황과 운영되는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북 나우[NOW]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확대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정규 수업 이후의 종합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작년의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는데 전체 11,178명 중 8,960명(80.1%)가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모두 수용하고, 몰입도와 감성·창의놀이 등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 이해됩니다.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늘봄지원실을 완성하고 전담행정인력 배치를 통해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 되도록 탄탄한 교육복지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충북교육청은 늘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칭'충북 나우늘봄 미래거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주말까지 책임지는 놀이와 휴식, 수업과 체험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과대·과밀학교의 늘봄 수요에 맞춰 거점형 늘봄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돌봄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의 유휴공간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충북 나우[NOW] 늘봄학교'가 더 많은 학생을 품고 더 나은 늘봄 프로그램을 담아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는 국제공인 대입 시험이자 학교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세계 160여 개국, 5,700여 학교와 서울, 경기 등 국내 11개 시도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IB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눈높이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지난 5월, IB 프로그램 도입 발표 후 시도 간 업무협약과 IB 본부와의 협력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IB교육의 학교 안착은 교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IBEC(국제바칼로레아 교사자격증) 과정과 수업설계와 평가 전문가 연수 지원으로 IB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IB 준비교 9개교를 운영하였고 올해는 신규학교를 추가로 공모하여 운영교를 18개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중·고 IB 학교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리더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IB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고 IB 수업을 일반학교로 확산하여 학교의 성장과 함께 지역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도 공교육에서 IB교육을 통해 국내외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공교육으로 진학까지'라는 슬로건으로 단위학교의 진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공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목표는 기초·기본학력 신장과 진로진학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데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그 동안 소홀했던 학교의 진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최근 15년 동안 역대 최고의 대학 입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 한 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취약했던 국, 수, 영 수능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한 해의 진학 성과와 함께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진학 경쟁력입니다. 이

를 위하여, 단위학교 선생님들의 진학 역량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대입 진학 데이터와 합격 사례집, 면접 사례집, 수능 위크북 등, 진학자료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중심의 진학지원 체계, 우리 충북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더욱 신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인 단재고에도 IB 교육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안학교의 특성은 어떻게 살려나갈 계획이신지요. ■우리 충북교육청은 치유형, 전환형, 성장형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재고등학교는 재능과 진로 목표가 있으나 강의식 수업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로서 3월 개교하게 됩니다. 단재고의 개교 연기는 교육과정의 재편성, 필수시설공사와 효율적인 교육공간 조성을 위한 공교육의 책임이 반영된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단재고 학생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단재고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교육과정으로 미래핵심역량과 자기 주도성을 높여갈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 결정한 교육비전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빛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재고 학생들은 희망 진로에 맞춰 선택한 과목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여 지식을 확장하고, 공동체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가치와 역량을 키울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단재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IB프로그램을 적용한 학생중심의 수업과 눈높이 평가'에 있습니다. 토의와 토론, 프로젝트 수행 학습 에세이와 소논문의 작성·발표 등으로 지식을 만들어가는 수업과, 논술·서술형

평가를 통해 깊이 있는 배움이 일어나도록 평가할 것입니다. 단재고등학교가 신채호 선생님의 얼을 잇고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는 공립형 대안학교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해 나겠습니다. □최근 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로 규정되면서 학교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됐는데, 교육부 계획에 차이가 생기면서,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AI는 삶의 필수적인 도구이자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OECD에서는 21세기 핵심역량 중 하나로 도구 활용 능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첨단 에듀테크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교육적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역기능이 공론화되면서 교과서로서의 채택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국회와 교육부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원할히 소통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국회의 상환을 고려하면서 학교 지원방안을 총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활용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 설계 등의 교사 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학습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AI와 첨단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인 몸 근육과 마음근육 강화로 디지털의 역기

능을 예방하고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디지털과 AI 기술이 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원 119, 심리치유 등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보완되는 내용도 있나요? ■저는 취임 이전부터 학교의 본질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서·초·사·전'이전인, 22년 12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법률상당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윈스톱 종합지원 시스템인 '교원 119'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의 교원보호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되어 각 시도에 파급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9월에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 1.0>을 발표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교원 119'에 마음 클리닉과 약성 민원 대응팀 등의 지원으로 선생님들이 고립되거나 무력감이 들지 않게 노력했고, 그 결과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특이민원 등으로 선생님들의 심리적 소진 상태가 심각하고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사안 유형별 맞춤형, 선제적 지원사업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2.0>을 작년 10월,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시 12시간 이내의 신속 대응, 전문가의 법률 지원을 위한 '법률 지원단' 운영, 신규 및 저경력 교사를 위한 특별지원으로 '상담실습 아카데미'와 '동행교사제' 운영 등이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의 '교사존중 캠페인'과 현장을 반영한 교육활동보호지원 정책으로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은 위협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보호하는 것이 곧, 교육현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선생님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서로 존중되고 보장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충북교육가족 여러분, 올사년(乙巳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충북교육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육 사다리를 펼쳐 학생 한 명 한 명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곳에서 배움이 일어나 모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속에서 새롭게 맞이하는 도전의 해이자,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미래의 흐름을 읽고, 이를 발판 삼아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충북교육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 정신에 감사하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성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이 베풀어주신 조언과 격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빛나는 충북교육의 미래를 향해 여러분과 더 넓고 깊게 공감하고 진심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사년(乙巳年)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좋은 결실을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기자